4급 이해 듣기 대본

※ [1~5] 다음 대화를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을 고르십시오. (각 3점)

1.

남자 : 수미 씨, 시험 결과 나왔어요?
여자 : 네. 나왔는데 합격이래요.
남자 : _____

2.

여자 : 서둘러야 되지 않아요?
남자 : 아직 시간 많이 남았어. 서두를 필요 없어.
여자 : _____

3.

남자 : 휴가 때 어디 안 가세요?
여자 : 해마다 바다에 갔으니까 이번에는 산에 가 볼까 해요. 민수 씨는요?
남자 : _____

4.

여자 : 바깥 날씨 어때요?
남자 : 바람이 꽤 많이 불지만 그렇게 춥지는 않아요.
여자 : 그러면 코트는 필요 없겠지요?
남자 : _____

5.

여자 : 요즘 김영수 씨 많이 달라졌지요?
남자 : 정말 몰라보게 성실해졌어요.
여자 : 어쩌면 그렇게 하루 아침에 바뀔 수 있는지 궁금해요.
남자 : _____

※ [6~8] 다음은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각 3점)

6.

먼저 시작 단추를 누르면 불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엔 미리 저장한 비밀번호를 누르십시오. 다시 한 번 시작 단추를 누르십시오. 그러면 불이 꺼질 것입니다. 자, 이제 문이 열렸습니다.

7.

여자 : 요즘 사람들이 요가를 많이 하는데, 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남자 : 요가요? 요가는 남녀노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여자 : 특별한 도구가 필요한 것도 아니라면서요?
남자 : 네, 맞아요. 요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숨 쉬기인데 처음에는 익숙해지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일단 숨 쉬기에 익숙해지고 나면 다른 동작을 따라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8.

여자 : 요즘 왜 낚시하러 안 나오세요?
남자 : 아, 예. 저 낚시하는 거 줄이려고 해요.
여자 : 아니,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남자 : 그런 건 아니고 낚시하러 다니느라고 그동안 가족들에게 너무 소홀히 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더 크기 전에 시간을 같이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9~14] 다음을 듣고 들은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각 3점)

9.

남자 : 몸이 좀 어떠세요?
여자 : 별로 좋아지지 않는 것 같아요.
남자 : 약은 제대로 잘 드세요? 혹시 너무 과로하시는 것 아니에요?
여자 : 약은 꾸준히 잘 먹었는데 쉬지는 못했어요.
남자 : 휴식보다 더 좋은 약은 없대요. 일도 좋지만 건강도 좀 챙기세요.

10.

여자 : 일기는 그날 한 일을 쓰고 자기 생각을 쓰면 되는 것인데 사람들은 매일 쓰지 못하고 포기하는 것 같아요.
남자 : 어떻게 하면 일기를 빠뜨리지 않고 매일 쓸 수 있을까요?
여자 : 일기를 항상 길게 쓰려고 하다 보면 쓰기가 정말 싫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길게 쓰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전 실제로 너무 피곤할 때는 단어 몇 개만 쓰기도 해요. 하지만 그날의 날씨와 특별히 기억해야 하는 일은 꼭 쓰는 게 좋아요.

11.

남자 : 아니, 집 안이 왜 이렇게 어둡지?
여자 : 아, 형광등 한 개를 안 켰어요. 한 개로도 충분할 것 같아서요.
남자 : 너무 어둡지 않아? 어, 텔레비전은 왜 안 켜지는 거야?
여자 : 플러그를 꽂아야 돼요. 오늘부터 안 볼 때는 플러그를 빼 놓기로 했어요.
남자 : (짜증나는 투로) 왜 그렇게 하는데? 귀찮잖아.
여자 : 그런 말씀 마세요. 조금 귀찮기는 해도 이렇게 하면 전기 요금이 10퍼센트나 절약된대요.

12.

여자 : 요즘 '아빠, 저 혼자는 너무 외로워요'라는 출산 장려 표어를 들어 본 적 있으세요?
남자 : 네. 옛날에는 아이를 많이 낳았기 때문에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표어가 있었는데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여자 : 아무래도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여성의 경우 아이 낳기를 꺼리는 것이 원인이 아니겠어요?
남자 : 네.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교육비 등의 경제적 이유로 출산을 꺼리는 건 마찬가지죠. 앞으로가 큰일입니다.

13.

여자 : 오늘 아침 방송에서 들었는데 건강해지려면 물을 하루에 열 잔 이상 마셔야 된대.
남자 : 그게 정말이야?
여자 : 그래. 그런데 마시는 방법도 중요하대. 급하게 마시면 절대로 안 되고 또 밥을 먹다가 마시면 안 된대. 밥 먹기 전 아니면 식사와 식사 사이에 먹어야 약이 된대. 식사 후 한두 시간 후에 먹어야 좋대.
남자 : 그래도 매일 물 열 잔씩 마시는 건 보통 일이 아닐 것 같다.

14.

(호루라기 소리 먼저 들어가고 난 후)
남자 : 면허증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여자 : 여기 있는데요. 제가 뭘 위반했나요?
남자 :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자 : 아, 급히 출발하느라고 깜빡했네요.
남자 :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날 경우 귀중한 생명을 잃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자 : 네. 알겠습니다.
남자 : 안전띠 미착용으로 범칙금 3만 원을 내셔야 합니다. 30일 이내에 가까운 은행에 가서 납부하십시오.

※ [15~18] 다음을 듣고 알 수 있는 것을 고르십시오. (각 3점)

15.

전화로도 쓸 수 있고, 사진기로도 쓸 수 있고, 컴퓨터로도 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휴대 전화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휴대 전화는 첨단 기능을 다 갖춘 기기입니다. 요즘은 은행 업무도 휴대 전화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휴대 전화로 모든 일을 해결하는 세상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된다면 세상이 얼마나 편해지겠습니까?

16.

여자(할머니) : 옛날에는 삼대가 한 집에 살았고 식구 수도 많아서 훨씬 사람 사는 냄새가 났지요. 요즘은 자식들 집에 다니러 가도 영 쓸쓸하고 재미도 없어요. 요즘은 다들 바쁘니까 대화하기도 어렵고요. 가까운 곳에 살아도 자주 모이기가 쉽지 않으니 무슨 일들이 있는지도 서로 모르고요. 어쩌다 사람 사는 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젊었을 때가 훨씬 더 좋았어요.

17.

남자 : 이번 주 토요일 예술의 전당에서 귀국 기념 음악회를 갖는 김은영, 김은희, 김은경 자매의 어머님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따님 세 분을 모두 유명한 음악가로 키우셨는데, 그 비결이 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여자 : 특별한 비결이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어릴 때 보니까 셋 모두가 음악에 재능이 있는 것 같아 그쪽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줬을 뿐입니다.
남자 : 너무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18.

남자 : 이 차는 정말 오래 됐군요.
여자 : 네. 15년쯤 전에 산 거예요. 그동안 큰 사고나 고장 없이 잘 탔었는데 요즘 들어 자꾸 말썽을 부리네요.
남자 : 검사해 보니까 이제 몇 가지의 부품은 수명이 다 한 것 같습니다. 부품이 있어야 수리가 가능한데 죄송하게도 이 차의 부품은 이미 생산이 중단돼서 구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여자 : (아주 놀라는 투로) 네? 그럼 이 차를 더 이상 탈 수 없다는 말씀이세요? 어떻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19~22] 다음 내용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각 4점)

여자 : 요즘 하늘 봤어요? 항상 뿌옇게 뭔가 끼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남자 : 그래요. 공기도 나쁘고요.
여자 : 저는 목과 눈도 자주 따끔거려요. 감기도 아닌데 기침도 하고요.
남자 : 저도 그래요. 감기에 걸리면 잘 낫지 않는 것도 다 이 나쁜 공기 때문인 것 같아요. 대기 오염이 심각하다는 말이 이제 정말 실감이 나요.
여자 : 그나저나 대기 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빨리 나와야 할 텐데 큰일이에요.

19. 두 사람은 무엇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지 쓰십시오.

여자 : 같이 사는 친구가 일을 전혀 하지 않아서 매일 제가 청소, 설거지를 혼자 다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남자 : 친구가 너무 바빠서 그런 거 아닐까요?
여자 :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화를 내면서 말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알았다고 하고서 여전히 아무것도 안 해요.
남자 : 그럼 친구에게 다시 한 번 말해 보세요.
여자 : 네. 알았어요.

20. 여자가 친구에게 할 말로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남자 : 구청에 좀 갔다 올게요.
여자 : 구청에 볼 일 있어요?
남자 : 네. 가서 책 좀 빌려 오려고요.
여자 : 구청에서도 책을 빌릴 수 있어요?
남자 : 그럼요.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 구청에서는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학생들을 위한 컴퓨터실과 공부방도 무료로 운영하고 있어요.

21. 두 사람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지 쓰십시오.

남자 : (중년, 사장님 톤) 직원 여러분, 우리 식당이 모범 식당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식당이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식당으로 뽑힌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식당은 음식의 맛을 강조하기에 앞서 음식에 사용되는 재료를 엄선하고 정성으로 조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식당이 상을 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다른 식당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친절한 서비스와 깨끗한 환경 때문입니다. 우리 식당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직원 여러분의 노고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직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 드립니다.

22. 상을 받게 된 이유 두 가지로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 [23~24] 다음 내용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각 4점)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어려운 일 중의 하나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흔히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싸우게 될 때가 많은데 대부분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진정 용기 있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정정당당히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세상에 첫발을 내딛는 졸업생 여러분, 자신의 잘못을 감추지 않는, 양심을 갖춘 지식인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23. 어디에서 하는 말인지 쓰십시오.

24. 이 사람이 하고자 한 말은 무엇인지 고르십시오.

※ [25~26] 다음 뉴스를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각 3점)

남자 : 아침 7시 뉴스 '현장을 가다' 입니다. 저는 지금 고속도로 매표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른 아침이지만 주말을 맞아 나들이를 가는 차량들로 고속도로는 붐비고 있습니다. 오늘로서 토요일과 일요일은 일하지 않고 쉬는 주 5일제 근무가 시행된 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주 5일제 근무를 실시하는 업체들이 늘어남으로써 시민들의 생활도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시민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 5일제 근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자 : 저는 저희 애들과 아빠가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좋아요. 하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외출할 때가 많아서 지출이 너무 많이 늘었어요. 그것 빼고는 다 좋은 것 같아요.

25. 여자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 고르십시오.

26. 들은 내용과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 [27~28] 다음 내용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각 4점)

여러분들도 드라마 많이 보시지요? 드라마도 세월이 지나면서 많이 바뀌었지만 시청자들도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요즘 시청자들은 보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들, 출연하는 탤런트 등 드라마와 관련된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적극적인 시청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시청자들 중에는 너무 드라마에 빠져서 실제 생활과 드라마를 구별하지 못하는 아주 광적인 시청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흔히 업무에 태만해지고, 대인 관계도 나빠진다고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로 인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27. 들은 이야기의 주제어는 무엇인지 쓰십시오.

28.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 [29~30] 다음 내용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각 4점)

남자(기자) : 최근 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노년층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들 노년층의 인구 증가는 계속될 것이므로 우리 사회의 고령화에 대한 대비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 인구의 6퍼센트에 달하는 노년층 인구를 활용하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교육부가 발표한 노인 교육의 활성화 방안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내년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노인 교육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실시하고, 노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루빨리 이 프로그램이 자리를 잡아 노인들의 사회 참여 기회가 많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KPT 뉴스 김민수입니다.

29. 기자는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 쓰십시오.

30. 들은 내용과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십시오.